

#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이 확증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노선희,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 Preference Job Type on Confirmation Bias

Seon-Hee Roh,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선호 직업 유형이 진로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확증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3회에 걸쳐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는 선호 직업 유형, 진로 적성과 상관없이 개인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직업·진로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증편향적 사고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틀 속에 자신을 맞추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시사점은 선호 직업 유형이 전공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확증편향은 취업과 직업 탐색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과 개인별 직업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진로 교육과 교육 환경 및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and role of college students' career preference typ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areer selection, and also analyzed the effect on the confession bias in the proces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0th to July 9th, 2017. The case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three times over 20 days by interviewi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study participan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 preferred occupation type and career aptitude, but mostly there is a bias toward career and career. Confirmed biased thinking is a phenomenon that is shaped by the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at they try to fit themselves into a framework that reflects social awarenes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reference type affects the selection of the major, and that confirmation bias is a hindrance to proper employment and a job search. The preference for the individual job typ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Environment and opportunity should be provided.

**Keywords** : Preferred Occupation Type, Confirmation Bias, Career Aptitude, Career, Career Barrier

### 1. 서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 중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면서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 취업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자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Corresponding Author : Ki-Seung Kim(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Received August 20,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September 16,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의 특성과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 진로 시기가 타고난 적성의 중요성을 알지만, 진로 방향 설정에 있어 많은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남북 분단, IMF, 급속한 경제성장, 극심한 이직실태[1] 등 특수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취업 위주가 되고 있다. 또한, 졸업예정자들은 영어나 인턴십, 취직과 면접 준비 등 스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과 취업 스트레스, 자기 격려에 유의미가 상관관계가 있으며[2],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들을 스스로 '졸업 백수'라고 지칭한다[3].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심리적 장벽을 겪게 되고 취업준비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4]. 취업에 있어서 진로장벽이나 스트레스 역시 남, 여성별 차이도 없다[5].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호 경향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그 일에 만족도나 효율성도 없다[6].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취업에 직면한 대학생들이 또 다른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학 생활 내내 올바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환경과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여건의 영향도 있다. 물론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의 별도의 스펙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준비과정에서 진로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적합한 직무성향에 대해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진로나 취업 관련 정보는 또 다른 형태의 확증편향 현상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특정 직업에 대해 좋아하거나 사회 전반에 걸쳐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이 이입되는 결과, 직업선호도가 형성되고 취업선호도가 취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7].

진로 상담이나 진로지도 현장에서도 직업 선호(vocational preference)와 직업 흥미는 용어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이 두 용어는 분명히 개념이 다르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과 상관없이 어떤 직업에 대해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업선호도라면 직업 흥미는 이러한 자신의 직업적 가치가 반영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업선호도에 관한 논문에서도 성별 차이가 없다[8]. super(1949)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 흥미의 근원을 4가지 요소로 나누면서 유전적 속성이 직업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전적 요소가 단독적으로 흥미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속성들

은 흥미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직업 흥미를 설명하는 변량의 30~50%가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Thorndike(1915)는 직업 흥미가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의 결과물로 인간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타고난 능력, 또는 적성이 있는 영역에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곧 타고난 적성이 좋아하는 직업선호도를 형성시키며 여기에 따른 선택을 한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Holland 역시 성격의 5요인 모델과 6가지 직업성향의 중요관계(Gottfredson)에서 타고난 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106개의 직업들에 대해 대학생들의 선호도 수준과 명성지각 수준을 판단한 연구결과, 흥미 유형 전체에서 직업에 대한 명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특정 직업이 갖는 사회적 명성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업선호도 측정에 암묵적 측정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9]. 이 점 역시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하여 따르려는 확증편향성으로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을수록 개인의 확증편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혼란을 겪게 되고 실업의 원인마저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직업선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주도하고 진로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10]. 비판적인 사고에 방해되는 요인이자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도 확증편향이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나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1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시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나 출세, 지위, 신분이나 권력 등에 대한 가치를 우선으로 하거나 대중적인 선망의 직업이 주는 사회적 명성과의 관계 연구에 중점이라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유형이 진로에 대한 사고과정에서 특정한 확증편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확증편향이 아니라면 자신의 적성과 상이한 선택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자신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좋아하는 직무를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유형과 선호하는 직업 유형이 어떤 식으로 확증편향을 형성하는지 파악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태도와 인식이

일치되는 확장편향의 정보를 통해 조합되는 선호 직업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전문성이 강한 업무를 선호하며 독립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 1.2 이론적 배경

### 1.2.1 대학생의 진로선택과정

대학생들은 대학진학 후 진로 대안을 확장 시키며, 의사결정과 진로 준비 행동을 통하여 직업에 있어 지위의 확립 과제가 주어지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선택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등 진학에 유리한 정보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12]. 진로와 관련, 대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는 분류는 대학생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별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자료이며[13], 진로 이론은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예측 불가의 변인들은 일종의 오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14]. 그러나 현재는 계획성, 합리성보다 개인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디는 새로운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합리성 외에 직관, 감정, 사회정의 등을 함께 수용하고자 한다.

### 1.2.2 선호하는 직업 유형 개념 기준

본 연구는 선호하는 직업 유형에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부여, 직장형·사업형·자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15].

1. 선호유형 직장형 : 서열본능이 강하고 조직 내에서 강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단체 활동에 적응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형
2. 선호유형 사업형 : 리더십이 강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며 확장성이 강한 성향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와 실행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형
3. 선호유형 자유형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조직 활

### 1.2.3 확장편향 개념 및 특성

영국 심리학자 Peter Wason(1960)이 제시한 확장편향(Confirmation Bias)이론은 ‘규칙발견과제가설(rule discovery task)’에서 기존의 신념을 선호하는 확장편향을 처음으로 나타냈다. 확장편향은 논리학에서 ‘불완전한 증거 오류(The Tallacy of Incomplete Evidence)’라고 하며, 불확실한 가설이나 혹은 자신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 선호하는 가설에 대한 정보는 수용하되 반대되는 정보는 도외시하는 무의식적인 인지과정특성을 보여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참여자와 윤리성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2017년 수도권 및 경기도지역 대학교 재학생 중 4학년을 대상으로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개인적인 정보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며, 개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2.2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진술을 위해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형식의 면담으로 질문 내용은 연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Major	Age	Preferred Occupation Type
No.1	M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3	Free type
No.2	Man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26	Free type
No.3	Man	Interior Department	25	Free type
No.4	Man	Department of Architecture	25	Business type
No.5	Man	Interior Decoration	28	Business type
No.6	Woman	Department of Security	23	Business type
No.7	Woman	Interior Decoration	24	Rectangle type
No.8	Woman	Department of Fine Arts	23	Rectangle type
No.9	Woman	Department of Design	24	Business type
No.10	Woman	Department of Law	26	Business type

Table 2. Discussion Questionnaire

Division	Question Contents
Course Selection Process	- Difficulties in career choice activities - Preparatory efforts for career - Satisfaction ratings for choosing your career choice
Confirmation Bias	- Criteria for selection of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in the career selection process - The difficulties that arise from career selection activities are the Consequences of Thought
Future Plan	- Mindset and necessary preparation for career development - Plan after graduatio

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고, 질문항목에서는 포괄적인 연구주제로 Table 2와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을 작성하였다.

### 2.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분석방법을 선택, 독립변인은 대학생의 선호 직업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선호 직업 유형에 따라 직장형·사업형·자유형으로 분류, 개인별 특성은 학교소재지·학년·성별로 하였다. 확장편향이 종속 변인이며, 확장편향의 하위요인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생각의 증거를 따르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과 사례분석을 참고하여 해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면담 자료에서 참여자 개인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주제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면담 자료를 분석, 반복되는 내용의 의미를 탐색하고 주어진 키워드 중심으로 상위개념을 도출시켜 범주화된 개념들을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중 일부에게 참여자 검토방법(member check)으로 요약본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로선택 활동에서 경험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Table 3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Table 3. Categorization by Interview

Division	Categorization Items
Career Selection Activity Course	- Efforts for Career - Various experiences for career choice
Confirmation Bias	- Only found evidence of preferred thoughts
Plans and Alternatives	- Efforts to overcome career barriers

## 3. 연구결과

### 3.1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활동분석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급격하게 양적 팽창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현재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및 일반화로 발생 된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와 함께 대학입학이 보편화됨으로 인해 오히려 고급인력의 과잉양성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대학 졸업자들이 거대한 취업의 문턱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6]. 또한, 불안정한 진로를 선택, 대학입학 이후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17].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 역시 대학에 진학하려고 힘든 입시전쟁을 겪었고, 입시학원이나 주변의 권유 등 제공되는 입시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대학입학 후 전공에 대해 고민하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와 함께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진로 행동 모습에서 진로 활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9], [참여자 10].

*어릴 때부터 꿈이 국가대표였었기에 친구들보다 일찍 용인체대 진학을 결정할 수 있었고 입시학원도 빨리 다녔어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입학 전형에 맞춘 실기 준비도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어요(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맨이 꿈이었고 학과의 특성상 지방대지만 서울 소재 학교보다 우월하다는 강한 사회통념을 따라 결정된 부분에서 인지적 확장편향과 함께 기질적으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즉 서울거주임에도 지방의 용인체대를 선택하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점을 볼 때 기질적으로 선호 직업 유형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학 사정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에 필요한 준비에 매진했어요. 그 당시 교사인 친척분의 권유로 별 고민 없이 중학교 3학년 때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결정했어요(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정보 부족으로 주변의 권유를 따랐으며 입시제도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기성세대의 의견을 따른 점을 보면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직업에 대해 비판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확장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꿈은 화가였지만 서양화과를 진학하지 못했어요. 미대는 부모님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포기하고 취업에 유리한 디자인 쪽 진로를 선택했어요(참여자 3).

연구 [참여자 3]은 타고난 예술성을 발휘, 직업 유형이 예술가의 자유형으로 일찍부터 그 기질을 나타내었으나 가정형편을 고려, 잠재된 재능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순수예술 분야는 아니지만, 취업에 유리한 디자인계열로 진학,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직장생활도 가능한 선택을 한 경우이다. 여기에 취업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공모전이나 자격증 취득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례자이다.

국어나 영어는 그래도 등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수학 등급이 낮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수학 점수 반영이 낮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어요(참여자 4).

연구 [참여자 5]는 이과보다 문과 성향이 강해 수학 점수가 취약함으로 인해 '삼수' 끝에 합격한 학교라 애착이 강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취약한 과목은 대학진학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진학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던 사례자로 취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자격증 등 스펙을 일찍 준비한 경우이다.

고3에 진로를 결정, 늦은 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투수업이 주를 차지하는 학과특성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로 고민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도 경호학과를 지원했으나 학과 특성상 태권도나 유도 같은 유단자가 유리하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점들로 인해 진로변경을 결심한다. 타인에게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걸 좋아하기에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공무원인 교사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군이자 본인의 적성과 부합된다는 판단을 하여 영양 교사에 도전하게 된 사례자이다.

고 1부터 남들처럼 입시 준비는 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나 과가 없어 성적 위주로 학교 선생님과 결정했는데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의논할 대상도 따로 없었어요(참여자 7).

연구 [참여자 7]은 입시학원에서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과를 추천받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곧 취업에 유리하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대학 입학 후 새롭게 받아들인 확장편향으로 자신의 선택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에 대한 편향성을 쉽게 받아들인 경우이다.

막상 대학에 진학해 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수업 따라가기도 벅차고 과제로 밤샘을 해야 하는 등, 결국 휴학을 했죠. 창의성을 요구하는 수업이라 더 힘들었죠(참여자 9).

연구 [참여자 9]는 예술지망생으로서 꿈꾸던 대학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적 학습 과정에서 이질감과 좌절감을 겪으면서 전공에 대한 또 다른 편향성을 갖게 된 경우이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배나 선생님의 말씀에도 결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위해 고3 마지막에 법대를 선택했어요.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0]는 자신의 의지보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법대에 진학, 입학 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워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나 법대생으로서의 대학 생활이 나쁘지 않고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차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과 직업적으로도 사회적 호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에 본인도 만족하게 된 경우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많은 입시 제도를 경험해야 했다. 합리적인 입시제도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쏟아내는 국가의 입시제도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래도 미래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진로미결정으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낸다[18]. 대학진학 후 전공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가진 참여자들이 사회나 주위에서 권유하는 학과[19]를 따른 점은 내재된 확증편향을 따라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일정 부분 편파적인 직업선택을 보여주며 일부 참여자들은 목표지향과 활용가치 및 흥미 열정을 주관하는 선호 직업 유형이 진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 3.2 취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

대학생이 된 이후 그들에게 주입된 확증편향은 대학진학의 목적 중 기본 요인으로 취업의 발판이 된다는 점도 있지만, 오히려 다음 목표인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 취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대학 생활 내 내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을 통하여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선택이 적성에 맞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 인턴 과정, 교생실습, 단기취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만들었다[참여자 3],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취업을 희망하지만, 졸업 후 바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 일단은 취업을 목표로 인턴 실습 등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고자 했어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괜히 불안하고 혼자 뒤처지는 듯 해서요(참여자3).*

*전과 후 교사임용에 대비, 교육학을 공부하고 방학을 이용, 한식 조리사 자격증,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참여자6).*

*대학은 기대와 다르고 너무 힘들어 휴학한 후 취업을 했었어요. 물론 졸업 후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회사였기에 열심히 했어요(참여자7).*

*입학 후에는 사회적 낙오자가 될까 더 불안했어요.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자격증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택, 취득하면서 틈틈이 인턴 등에 참여해 경험*

*도 쌓았고 전공과 관련해 공모전에도 도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스펙을 쌓았어요(참여자 8).*

*디자인전공이라 유학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각종 공모전에도 참여하면서 포토폴리오를 준비했어요(참여자9).*

### 3.3 의사결정에서의 확증편향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환경의 익숙함에서 물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갖는 새로운 경험으로 그동안 가졌던 생각에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수동적 확증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는 타인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더 우선시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통학시간이 왕복 4시간이라 만류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나 체대라면 경기소재 00대학이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강했어요. 거리가 먼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에 대학선택에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참여자 1).*

*삼촌께서 교육일선에 계시다 보니 정보가 빨랐고,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등 앞으로 취업 걱정 없다고 권유했어요. 제 적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직업과 연계된 학과를 추천해주셨어요(참여자2).*

*미술전공을 희망했으나 아버지는 미술전공으로는 먹고 살기엔 힘든 직업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셨어요. 특히 남자는 앞으로 경제면에서 가정을 책임져야함으로 본인의 길을 따라 기계공학 쪽으로 가면 선배로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일 거라고 하셨죠(참여자3).*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체대면 00대학, 미술은 배고픈 직종, 00과는 취업 100% 등등의 사회적 통념에 젖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기준을 가지기 부적절한 영향을 받았다. 주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진로 결정 중에 주어진 정보를 개인의 목표로 타당화 시키고 목표에 맞게 왜곡하거나 기억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나도록 하는 데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확증편향은 스스로 주변 환경과 타협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진로와 관련, 전공을 추천하는 이들이 대부분 성인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나마 편안하고 경제적인 면이 고려된 조인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 기성세대가 가진 직업에 대한 확장편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 3.4 동기유발에서의 확장편향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3D직업기피 현상, 사회적 경기불황, 경력직 선호 등의 현상에 사회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 듣게 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확장편향의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20]는 선행연구와 같이 확장편향에 따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성향에 맞춰 단순화시키거나 인지하게 된다. 이는 집단으로 범주화시키며 고정관념이 작용하면서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해 편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참여자 3], [참여자 5],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이과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따라 저도 이과를 지원했는데 사실, 문과를 나오면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하였고 이과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과선택을 중용하셨어요(참여자3).*

*저는 막연하게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성적에 맞추어 지원한 점도 있지만,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멋지다는 게 전공을 선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죠(참여자5).*

*졸업반이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 문제에 불안하고 걱정되면서도 웬지 저는 취업이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저는 취업을 위해 스펙 준비는 물론이요, 학점도 신경 썼어요. 학점이 좋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영어나 다른 자격증 같은 걸 더 많이 준비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나. 선배들이 스펙을 많이 쌓아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니 정말 걱정스러워요(참여자 8).*

*제가 가진 학력과 자격증만으로는 솔직히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경험이 많은 게 유리하다고 인턴십을 권유하니까 저 역시 여기에 동참하게 되더군요(참여자9)*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와 관련, 결정에 있어 동기를 진술한 결과,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 진로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다. 진로 결정을 내리고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들의 전공 불일치율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의 인력이 초과 공급되지만, 공학이나 자연계열의 전공자들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들의 ‘대졸 청년의 전공일지 취업 실태 분석 보고서’ 등 쏟아지는 정보에 더 불안해진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로 인해 자신의 적성보다는 장래를 위해 이과계열의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부 대학생 역시 계열에 대한 편향성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향들은 대학 생활 내내 취업 후에 자신이 내린 결정과 선택에 있어 잘못된 진로선택을 하여 후회할 것 같은 불안감과 자신의 학력이 결코 취업에 유리하지 않아 취업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장편향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찾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진로를 구체화 시키는 것도 차이가 드러나 일부 참여자는 진로 행동을 하면서 수렴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진로선택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물론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진로를 결정할 때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꿈, 즉 미래직업에 대한 선호유형이나 성장하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영향이 동기유발적 편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5 진로장벽을 극복 위한 준비

대학생 중심의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21]가 개발되었고, 이는 취업 관련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 직업선택에도 장벽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경쟁을 요구하고 능력 발휘를 요구한다. 따라서 진로에 있어 발생하는 진로장벽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선택이 만족도를 높인다.

이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업 유형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주어지는 환경에 맞춰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을 활용해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장벽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나 환

Table 4.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on career experience

Subject	Research Category	Research-oriented Concept	Participants
Career selection activity course	The importance of career information and career decision	Advancement, Time planning, Certification Acquisition, Learning,	①,②,③, ⑤,⑥, ⑦, ⑨, ⑩
	Efforts to prepare for Employment	Internships, Language Training Teacher training, Competition	③,⑥, ⑦, ④,⑥,⑧, ⑨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 bias of decision-making process	Career conflict, Social Employment	①, ③
		Psychological change, Motivation, Job Insecurity	①,②,③, ⑥
	Motivational assertive bia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major, a decrease in confidence.	③,⑤,⑥, ⑦
		Willingness to work, Career decision, Worries about employment activities, Vague employment.	⑧, ⑨
Plans and Alternatives	Discovering natural qualities to overcome career barriers	Self-discovery, Career choice	②,⑥,⑦, ⑧
		Self-confidence through other people, Enlightenment, Career invitation.	①, ⑥, ⑧

경적인 요인 등 걱정도 많았지만,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는 태도도 보였다. 진로 탐색 활동을 펼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직업적성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도전하고 노력하며 극복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하는 직업 유형을 직장형·사업형·자유형에 따라 구별하고 확장편향과 어떤 개연성을 갖게 되는지 확인을 위해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깊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다시 주제와 범주화 항목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대학생의 진로선택과정에서 선호 직업 유형이 확장편향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변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선호 직업 유형, 즉 직장형·사업형·자유형에 따른 확장편향의 변인과 어떤 개연성을 갖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선호 직업 유형 결과는 면담내용에서 보여준 진로선택 활동의 특징들에 대해 개연성이 있고 직업선택에서 자신의 선호도를 참고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를 위한 준비,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도전,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막상 진로문제를 대면하면 무기력, 망설임, 자신감 저하의 모습을 보이며,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요인은 취업준비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한다. 확장

편향적 사고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자신과 타인의 의견 차이로 갈등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공과 직업선택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대부분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서 개인이 인지하기도 전에 주입되는 직업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 인지도와 명성, 금전, 여기에 따르는 권력 등이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선호 직업 유형과 진로적성이 출생과 함께 기질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군을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기질적으로 사회성이 강하고 규칙과 원칙을 선호하는 직업형과 친화력과 사회성을 활용,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사업형, 조직보다는 개인적 성향을 우선시하는 자유형은 대학생 이전 진로선택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누구나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확장편향을 구축하게 되며, 대학진학 후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을 위해 입시학과 학교생활에 매진하면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자신의 선택이든 타인의 권유에 의한 선택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취업을 위해 또다시 전공 관련 자격증은 물론이요, 전공과 무관하지만,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경력을 준비하거나 인턴 등의 경험을 쌓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점들을 보면 입학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다. 대학진학 후에 유입된 선택이나 타인의 조언에 따라 제2의 취업경쟁에 나서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고에



변화를 주며 또 다른 편향성을 갖도록 주도하게 된다고 본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몇몇은 강한 확증편향의 특징을 보였다. 체대면○○대학, 미대는 ○○대학,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한 선택으로 ○○과처럼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강한 확증편향의 영향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기질적인 선호 직업 유형과 부모님을 비롯한 인간관계를 통해 그 영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적성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갈망하는 점에서 사회적 확증편향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대학생활 내내 학점 챙기면서 취업에 유리한 스펙 쌓기에 최선을 다하느라 대학의 낭만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볼 때 취업은 단순히 대학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며, 이미 부모나 족의 문제였고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 직업 유형이 흥미와 열정으로 전공에 대한 선택을 주도하고, 확증편향은 자신감 저하, 자신에 대한 왜곡된 통찰, 직업적 대안 평가에 있어서 동기 부족이나 고정관념을 야기 하며, 진로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흥미 탐색과 발견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탐색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선행연구는 많지만, 개인적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정서, 성격적 특성 등을 위주로 한 진로 관련 선행연구와 함께 개인적 성향을 반영,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올바른 진로지도와 개인의 자아 성찰의 필요성, 대학입학 후의 진로지도의 절실함 등 대학생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직업 유형에 대한 선호도에 더 많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참여자를 일부 대학교에서 임의로 표집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를 보완하거나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 대학교 대학생들로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있어 확증편향에 따른 적성을 무시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자 수를 확대, 비교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선호 직업 유형이 취업준비 행동

이나 확증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나 취업 장벽의 적정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이미 진로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부모나 주변 환경이 가진 확증편향이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 References

- [1] M. J. Lee, *An Analysis on the facts and intention of job separation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HRD Major in Employment, The Techno-HRD Graduate School, Cheonan, Korea, pp.1-3, 2017.
- [2] Y. Jo, *The effects of graduating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and their self-encourag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Major in Counseling &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48-55, 2017.
- [3] S. B. You,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eongju, Korea, pp.60-78, 2014.
- [4] E. J. Lee, *The Effects of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Verification of Medium Effect of Career-Decision Self-Efficac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pp.5-15, 2011.
- [5] S. J. Kim,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Stres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 29-34, 2013.
- [6] B. Y. Lee, Y. Y. Ha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areer Aptitud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2, pp.317-343, 2011.
- [7] S. W. Seu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Basic Job Competencies, and Job Preferences on Employment Probability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4, No.6, pp.93-113, 2015.
- [8] M. J. Kand,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Work Value and Job Preference according to Generation,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1-4, 2014.
- [9] J. W. Park, *In the Measurement of Job Preference Impact of Social Reputation: Focusing on Comparison with*

*Implicit Measurement*, Ph.D.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p.106-109, 2013.

- [10] S. W. Yo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onfirmation Biases and Job-Seek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p.91-96, 2016.
- [11] J. S. Je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ccuracy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rmation Bias and Irrational Decision-mak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Daejeon, Korea, pp.1-3, 2015.
- [12] J. H. Kim, "A Study on the School Career Education Support System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Admission Officers", *The Journal of Vocation Research*, Vol.29, No.4, pp.185-214, 2010.
- [13] H. G. Kim, *The Effects of Employment Barriers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 Focusing on Job Applicants in Korea Polytechnic Colleg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IT Convergence Scienc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Industry, Cheonan, Korea, pp.93-98, 2018.
- [14] E. Y. So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pp.19-36, 2001.
- [15] K.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of Myongri Occupational Apriority,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11, 2014.
- [16] M. Kim, "A Study on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Its Effects", *Korean Youth Association*, Vol.23, No.5, pp.123-151, 2016.  
DOI:<http://dx.doi.org/10.21509/KJYS.2016.05.23.5.123>
- [17] A. R. Nam,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Identity, Career Indecision and Student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8, No.1, pp.27-43, 2012.
- [18] Y. J. Choi, "Exploration of Latent Factors of Career Indecision for Conceptualizing Career Difficulties in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175-193, 2015.  
DOI: <http://dx.doi.org/10.15703/kjc.16.3.201506.175>
- [19] D. H. Kim, *Effect of College Students'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on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p.5-11, 2016.
- [20] Y. K. Lee, "Improving Critical Thinking Skills by Overcoming Confirmation Bias",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Vol.43, No.4, pp.1-31, 2012.
- [21] Y. J. Yu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p.35-38, 2016.

노 선 희(Seon-Hee Roh)

[정회원]



- 2006년 8월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예술학석사)
- 2018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진로직업상담, 직업심리, 교육심리, 심리치료

김 기 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장

- 2012년 5월 ~ 현재 :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이사장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선천적성, 진화심리, 직업상담, 타고난 재능